

전통 장류 문화 1번지 순창 주목

‘한국 장 담그기 문화’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순창서 전통 맥 잇는다

한국의 장 담그기가 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된 가운데, ‘장류의 고장’ 순창이 주목받고 있다. 이번 유네스코 등재를 계기로, 순창은 전통 장류 문화의 1번지로서 그 가치를 더욱 인정받게 됐다.

순창은 오랜 시간 동안 발효 음식을 중심으로 한 전통 문화를 지켜온 고장으로, 순창고추장민속마을과 발효테마파크가 그 상징적 장소다. 실제로, 매년 다양한 장류 관련 행사를 개최하며 지역 문화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실제로, ‘순창 장담그는 날’ 행사는 도시민과 외국인들에게 전통 장 담그기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지난 4월 열린 ‘순창 장담그는 날’ 행사 역시 매주 만들기 퍼포먼스, 장담그기 체험, 전통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3,306명의 관람객을 맞았다.

이외로, 군은 매년 전통장 문화학교를 통해 고추장민속마을내 명인·기능인들과 함께 무형문화유산으로서의 장 담그기의 가치를 알리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5,000여명이 참여해 장류의 중요성을 배웠으며, 외국인 캠퍼 참가자도 포함되어 국제적으로 발효 문화를 알리는 데 성공했다.



한국의 장 담그기가 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된 가운데, ‘장류의 고장’ 순창이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며, 순창이 발효 관광지로 자리 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함께, 전통을 보존하면서도 현대적 감각을 접목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다. 발효테마파크 내 시설을 통해 과학적 접근으로 장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장류축제와 같은 대규모 행사를 통해 국내외 관광객을 끌어들이며, 순창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는 한국의 발효문화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을 환기하는 계기”라며 “순창은 이를 통해 전통 문화를 더욱 널리 알리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군-목송그룹, 상생협력 ‘맞손’

‘농촌사랑 동행순창’ 협약 체결

순창군과 목송그룹이 도농교류 활성화와 상생협력 기반 마련을 위해 ‘농촌사랑 동행순창’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11일 순창군청 군수실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최영일 순창군수와 목송그룹 이명식 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1989년 설립된 목송그룹은 주택관리, 승강기 제조, 소방시설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7개 계열사 보

유 기업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적극 추진한다고 전했다.

이날 양 기관은 △임직원 연수와 워크숍, 순창 투어 등 도농교류 활성화를 통한 지역 발전 협력 △강의실과 숙박시설 등 순창군 내 시설물의 사용과 프로그램 운영 지원 △기업과 자치단체의 상호 발전을 위한 협력 정책 발굴 등 각 단체 간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과 지속적인 교류를 약속했다.



특히 이날 협약과 함께 목송그룹 임직원들의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식도 진행되어 눈길을 끌었다. 임직원 20명이 총 200만 원을 기부했으며, 오는 14일에는 제1회 순창아너스클럽과 함께 하는 김장체험·나눔행사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2기분 자동차세 5억1000만원 부과

임실군이 12월 1일 현재 관내에 등록 중인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세 5억1천만원(3,531건)을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의 차량 소유자에게 과

세되며, 연세액을 선납한 연납 차량과 6월 일괄 부과 차량은 제외된다.

납세의무자는 다양한 납부 방법을 통하여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올해 새롭게 시작된 차세대지방세 수납시스템 ARS(142211)로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해졌고,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은행 CD/ATM 기기, 가상계좌이체, 위택스, 지로 등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다.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이고, 납부 기한 경과 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변호관 영치 등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N치즈축제 준비 본격 돌입

축제 제전위 임시총회 열려… 2025년 10월 8~12일 5일간 개최

임실군이 2025년 임실N치즈축제 준비에 본격 돌입했다. 군에 따르면 임실N치즈축제 제전위는 지난 11일 위원, 대행사, 정책연구용역사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실치즈테마파크 지정환홀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지난 10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임실치즈테마파크와 임실치즈마을, 임실을 일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된 2024 임실N치즈축제 결과보고와 함께 정책연구 용역사의 용역결과를 보고 받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제전위원들의 의견교환을 통해 내년도 임실N치즈축제를 10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 동안 개최하기로 최종 확정 의결했다. 임실N치즈축제를 5일간 개최하는 것은 내년이 처음이다.

군은 이번 임시총회를 통해 내년 축제 일정이 확정된 만큼, 대행사 선정 등 세부 실행계획을 조속히 추진하여, 2025 임실N치즈축제를 보다 안전하고 즐거운 문화관광·산업형 축제로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 대강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열려

남원시 대강면은 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12일, 위원과 관계자 등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살피고 돕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4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역사회 보호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민간협력 네트워크 조직으로, 위기가구 발굴, 복지지원 발굴 및 연계 등 민간 중심의 지역복지 실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복지사각지대 대상



자 발굴 및 지역자원 연계 등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한 해 동안 진행된 협의체 사업 전반에 대한 성과 보고와 2025년 운영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왕정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열려

남원시 왕정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1일 제7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여 2024년 한 해 동안 진행한 특화사업 추진 결과 보고 및 2025년도 특화사업 추진에 대해 논의하였다.

왕정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민간 협력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사회적 안전망 역할 수행을 위해 정기기부(1인/1회), 일시기부, 착한가게, 착한가정, 현물 지정기탁 등을 통해 모금한 기탁금을 다양한 특화사업을 진행, 독거노인, 저소득 중장년 등 다양한 계층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다. 2024년 진행한 특화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 저소득 계층 체납 의료비 지원, 동절기 난방취약가구 난방유 지원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 통



국립임실호국원, 동절기 재난방지 자체 안전점검

국가보훈부 국립임실호국원(원장 김상우)은 12일 동절기 재난,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제3총령당 신축공사 준공을 앞두고 실시한 이번 안전점검은 공사현장 및 각 건물 등 시설물 관리상태 점검과 누전 차단기, 방화문, 배수로 경사지, 청사 내외 전기시설 비 점검 및 수리, 정전 사태에 대비한 준비 상황 등을 집중 점검했다.

김상우 원장은 “제3총령당 신축준공을 목전에 두고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위험요소들을 사전 점검함으로써 무재해 현장을 위한 직원들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하며 묘역 및 시설물 등 세세한 부분까지 점검하고, 숙지하여 일과시간 이후 또는 공휴일 상황발생시 비상대비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소방서, 완강기 사용법 홍보

남원소방서(서장 김승현)는 겨울철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생명의 줄’로 불리는 완강기 사용법을 홍보하고 나섰다.

남원소방서는 지난 8월 22일 부천시 소재 호텔에서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형화재가 발생한 만큼 피난기구 중 ‘완강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화재 안전기준(NFPA 301)에 의하면 숙박시설이나 공동주택, 업무시설 등 고층 건물의 3층 이상 10층 이하 층에는 층마다 완강기 1대, 간이완강기는 2대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고 홍보했다.

완강기 사용법은 △교리에 완강기 걸고 잡기 △지지대를 침박으로 밀고 릴(줄) 던지기 △완강기 벨트 조이기 △벽을 짚으며 하강 순이다.

나형철 예방안전팀장은 “정기적으로 장비 상태를 점검하고, 가족과 함께 완강기 사용법을 익혀 위기 상황에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N치즈

벨기에 출신 지정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

